

5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7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흠을 것이요 9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찌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10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여러분이 재건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재건할 때, 우리는 어떤 개념설계에서부터 시작한 이후 이것에 관해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의 위대한 재건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만 할까요? 그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삶의 재건이 필요하거나 교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의 재건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첫째, 기도의 인내를 주목하라: 느헤미야는 단순히 한번만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잊어버리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지속되는 행동입니다. 사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달받았고 또 이 소식을 왕에게 전달함으로써 그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략 4-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모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행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설교본문은 우리가 재건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내의 기도가 주는 것을 주목하라: 우리는 삶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삶의 작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기도는 삶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옮겨 우리가 섬기는 영광스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파괴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런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6절에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의지할 만하며 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파괴된 폐허 속에서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폐허 속을 걸어 나가야만 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폐허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그 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참회의 기도를 주목하라: 느헤미야는 또한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의 불순종에 관한 기도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죄의 고백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죄를 짓고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는 것에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 스스로를 큰 죄인이라고 자각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로부터 시작된 죄인의 뿌리에 속해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역시 문제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삶의 재건을 위한 첫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약속들을 주목하라. (느헤미야 5:8-9):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과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들은 번영하고 거

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재건을 시작하실 때 이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인간인— 여러분의 자녀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면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 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주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신 모든 선한 약속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들을 분리시키는 모든 벽들을 허무시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이 기도가 재건을 위한 첫 시작입니다.